

“광주, WHO 국제안전도시 인증 받자”

(세계보건기구)

문상필 시의원 “부정 이미지 벗고 경쟁력 강화” 추진 제안

광주시의 부정적 이미지를 벗고 광주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가 존립 요소인 ‘안전’이라는 포괄적인 정책이 국가는 물론 도시 등 지역단위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핵심과제로 등장한 상황에서 더욱 시선을 끌고 있다.

광주시의회 문상필(민주·북구 3) 의원은 13일 열린 제1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인구대비 범죄율 1위, 교통사고 2년 연속 1

위, 청소년 피해범죄율 ‘월등’ 등은 광주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라며 “이런 모습들은 광주의 대외 이미지 하락으로 인한 광주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려 결국은 21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및 과학비즈니스 벨트 등 앞으로 광주가 진행시켜나갈 사업들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고 광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WHO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국제안전도시 공인 도시는 세계 25개국 234개 도시로, 손상예방 프로그램 가동 뒤 손상 발생률이 4~23%나 감소했다”라며 “행복한 창조도시 만들기 및 UN인권도시, 무등산국립공원 추진 등과 연계한다면 시민이 행복한 광주, 세계 속의 광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광주가 공인을 받는다면 전국 최초가 될 것”이라며 “각 자치구 특성에 맞는 사업을 진행하도록 광주시가 프로그램과 예산을 적극 지원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

WHO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WHO 안전도시는 1989년 9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제1회 사고와 부상 예방 학술대회’의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선언에 기초하고 있으며, 모든 지역 사회 구성원들이 손상을 줄이기 위해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또한, 안전·안심·안정된 지역을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안전공동체를 형성해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먹지 못한다면 농장에라도...

13일 일본 북부 후쿠시마현의 한 낙농업자가 방사성 오염 우려로 인해 우유 출하가 중지되자 농장에서 키운 암소에서 얻은 신선한 우유를 자신의 농장에 뿌리고 있다.

/연합뉴스

日 유출 방사능 절반 대기중 떠돌아

30km밖 토양·식물서 스트론튬 검출

최악의 원전 사고 등급인 레벨7로 평가된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유출된 방사성 물질의 절반 정도는 아직 대기중에 떠다니고 있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또 제1원자력발전소 30km밖 토양과 식물에서 방사성 물질 가운데 요오드와 세슘보다 치명적인 스트론튬이 검출됐다.

13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가사이 아쓰시(笠井篤) 전 일본원자력연구소 실장은 대량으로 방출된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성 물질의 행방과

관련 “대기중으로 방출된 방사성 물질은 초기에 대량으로 유출된 방사성 물질을 포함해 절반 이상이 아직 대기중에 떠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방사성 물질의 행방은 기상조건과 대기중의 농도 등을 조사하면 알 수 있다”면서 “조속히 분석해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도 시간당 1TB(테라바이트)의 방사성 물질이 대기중으로 유출되고 있다.

또한 교통통신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은 12일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30km이상 떨어진 같은 후쿠시마현 이다

테 마을과 나미에초 등 3개소 토양을 조사한 결과 스트론튬89가 1kg당 13~260Bq(베크렐), 스트론튬90이 3.3~32베크렐 검출됐다. 또 식물에서는 모토미야(本宮)시, 오노마치(小野町), 니시고(西郷)마을 등 4개소를 조사한 결과 스트론튬89가 1kg당 1~61베크렐, 스트론튬90이 1.8~5.9베크렐이 검출됐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이후 스트론튬 조사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스트론튬은 칼슘과 성질이 비슷해 체내에 들어갈 경우 뼈에 축적되기 쉬우며, 폐쪽의 경우 감마선보다 위험도가 높은 베타선을 방출해 골수암과 백혈병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다. /연합뉴스

“광주 장애인복지재단 설립 절실”

정병문 시의원 “복지서비스 전문성 필요”

정병문(민주·비례) 광주시의원은 13일 “장애인 복지서비스 및 정책을 개발하고, 예산과 자원의 효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절실히 필요하다.”라며 장애인복지재단 설립을 광주시에 제안했다.

정 의원은 이날 열린 광주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복지수준의 문제는 인권환경을 가능하는 척도로, 문화와 인권을 도시브랜드의 중심가치로 추구하는 광주시의 대외신인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시대상황과 현실적 요구에 부응하는 복지정책의 전략적 변화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각 개인의 장애유형이나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인 복지서비스도 다양성과 전문성이 요구된다”라며 “장애인복지재단 설립은 시대상황을 반영하고 통합복지를 구현하며 지역 장애인복지 선진화를 견인하는 최상의 방안이자 절경”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어 “장애인복지기금

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 수준에 상응하는 목표 설정과 연차별 조성을 계획을 세울러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장애인복지재단과 복지기금은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가능하다.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며 타시도의 기금 운영 사례 등을 감안해야 한다”며 “민선 5기 공약으로 추진되는 장애인 종합지원센터가 건립되면 장애인복지재단의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한국계 미국인 남성 6개월째 北 억류중

미국인 1명이 북한에 억류돼 있다고 미 국무부가 12일 밝혔다.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미국인 1명의 북한 억류 사실을 확인하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인의 석방을 북한에 촉구했다.

그는 북한에서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스웨덴의 평양주재 대사관을 통해 억류 미국인에 대한 영사적 접근을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는 구체적인 억류 경위나 시기 등에 대해서도 언급을 피하면서 “이 미국인의 북한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다”고 말했다.

ABC 방송은 익명의 국무부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이 미국인이 지난해 11월 북한에 억류됐다고 보도했다. 또 CNN 방송은 억류 미국인이 한국계 미국인 남성 중(비자)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인이 북한에 억류된 것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 후 이번이 네 번째다. /연합뉴스

작년 1인당 GDP 세계 34위...구매력 26위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만달러를 다시 넘어 세계 34위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구매력을 기준으로 한 1인당 GDP는 3만달러에 육박하면서 26위로 평가됐다.

13일 국제통화기금(IMF)의 최신 경제전망 예측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GDP는 1조 71억달러로 전 세계 184개국 중 전년과 동일한 15번째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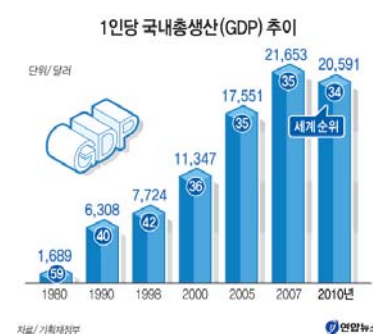
미국의 경제규모가 14조7578억 달러로 가장 컸고, 중국이 5조8788억 달러로 일본(5조4589억 달러)과의 격차를 벌리며 2년 연속 2위를

지켰다. 독일(3조3156억 달러), 프랑스(2조5825억 달러), 영국(2조2475억 달러)이 뒤를 이었고, 멕시코는 1조391억 달러로 한국보다 약간 높았다.

GDP를 인수로 나눈 1인당 GDP는 한국이 2만591달러로 2007년(2만1천653달러) 이후 3년 만에 2만 달러대에 복귀하며 세계 34위에 올랐다.

2008년말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이후 환율 상승의 영향을 받았던 2009년 37위에서 3계단 상승한 것이다.

1인당 GDP 1위는 룩셈부르크



(10만8천832달러)였으며, 노르웨이(8만1천444달러), 카타르(7만6천168달러), 스위스(6만7천246달러), UAE(5만9천717달러) 등 순이었다. /연합뉴스

손재홍 선거법 3건 모두 ‘무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재홍 광주시의원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정창호)는 13일 자신의 수사경력을 과장 홍보해 선거에 활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광주시의회 손재홍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관례나 기록 등을 검토했을 때 손 의원이 스스로 허위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손 의원은 재선 이상 지방의원

1430명을 대상으로 한 ‘2009년 제3회 대한민국 의정대상’에서 최의원 4명 중 한 명으로 선정된 뒤 이를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명함과 선거벽보 등에 1위를 한 것처럼 홍보해 지방선거에 활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애초 이 사건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했지만, 법원은 선거 당시 경쟁후보 측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기소 결정했다.

손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였으며 다른 2건은 모두 범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여 개월 동안 진행된 3건의 고소·고발에서 모두 무혐의, 무죄를 받은 것이다.

손 의원은 “미래의 정치를 보고 국민의 영달을 위해 합당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3차례에 걸쳐 고소·고발을 하는 바람에 지난 10개월 동안 저와 가정은 피해를 봤고 공권력 남비를 초래했다”라며 “저와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대방을 넘어뜨리려는 고소, 고발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손 의원은 자신을 고발한 경쟁 후보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

아이부터 어른까지 3대가 만족하는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고객님의 소중한 추억과 맛있는 행복을 약속합니다.

대·소모임 가능한 500석 완비!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의 다양한 룸구성으로 쾌적하고 아늑하게 모시겠습니다.

평일	영업시간	성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 (5세~7세)	토·일 공휴일	영업시간	성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 (5세~7세)
LUNCH	11:30~15:30	25,000원	12,000원	8,000원	LUNCH	11:30~15:30	31,000원	18,000원	12,000원
DINNER	16:00~22:00	31,000원	18,000원	12,000원	DINNER	16:00~22:00	31,000원	18,000원	12,000원

★ 어린이 요금은 의료보험증 등을 지참하여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약문의 062)671-1199

유스퀘어 터미널 2층 CGV 옆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칠만표방수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견적이나 텀핑견적은 넣지 않습니다.

광주 062) 서구 352-7788 북구 512-7998 남구 676-7719

전남 061) 목포(삼화) 274-5987 목포(건영) 243-7463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 / 칠만표방수제

서울 본사: 02-454-7722

기타지역: 080-777-0555